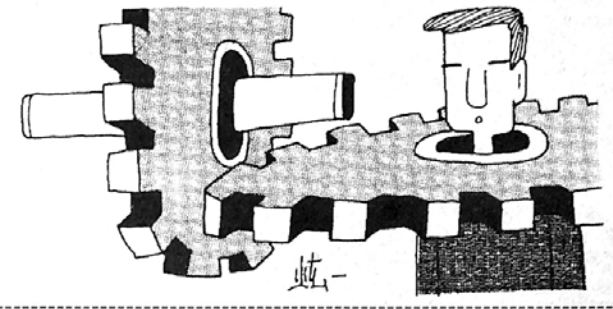


지 상 범 석

‘戒定慧’ 배를 타십시오

戒: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하려는 攝心
定: 마음 비우고 안정시켜 주인공 찾는 觀心
慧: 늘 깨어있는 고요하고 밝은 마음자리

며칠 담배 끊은 보람이 없습니다. 절에서 안피웠으면 나가서도 담배를 안피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율사상입니다. 한 번 자기가 그릇된 일인 것을 확고하게 알았다면 고치고 실천하는 그 결심 자체가 계입니다. 그래서 계는 섭심(攝心)입니다. 마음을 포섭하는 것, 외계의 나쁜 구렁텅이, 나쁜 합정 나쁜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잡는 것을 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이라는 것은 관심(觀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소리를 들리는 것만 듣지 말고 듣는 그 자체를 관찰해서 그 주인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맹이를 깨어 던지면 깨는 돌맹이를 물려고 합니다. 그와같은 어리석은 것은 없지요. 사자같은 영리한 동물은 그 돌맹이를 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돌을 던진 사람을 물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들어켜 들어서 듣는 그 자체를 꼭 포착하는 공부야 반문문성(返聞聞性)이고 반문공부입니다. 들어켜 듣는 공부, <염경>에서의 원통법(圓通法)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처럼 돌맹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그 사람 본체를 물어버리거든요. 즉



현대 물리학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흑백(黑白)이 분명한 아랍인의 논리가 서양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랍에 이런 얘기가 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6 김성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3

의 길이는 꼭 같고 시간의 길이는 꼭 같다. 이 시공간에 객관적 실재인 물질이 있어 인상적 경험세계에서 보는 물체와 별들은 이루는 것이다. 객관적 실재란 누가 보든 또는 보지 않든 거기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현대물리학이나 반야심경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고 모든 물체는 뉴턴의 역학적 법칙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고전역학이 갖는 물질·우주관이다. 운동방정식의 답은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고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물체가 갖는 속도와 위치인데 속도와 위치는 원리적으로 한없이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 물체의 운동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에 관하여 모를 것이 없었다. 즉 우주는 거대하고 정교한 기계에 불과하였다. 고전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와

고전물리학의 우주관

‘계율이행’ 이 그대로 생활일때 자유·평등의 삶 마음흐리면 중생세계 ... 생각 놓으면 부처자리

이지, 원래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마음에서 성취한 자리가 선이고, 깨달은 그 마음에서 중생을 위해 말씀하신 그 법이 교입니다. 다시말해 깨달은 분의 그 깨달은 진리 자체가 선이고 그 법을 여러가지로 설명하신 것이 교로서 결국 선과 교가 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사람들은 돌로 붙는다. 돌로 보면 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주만유가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정입니다. 마음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허망이 없고 진실하고 어찌나 오늘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여(眞如)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자리가 바로 진리의 본체로서 그것을 닦아서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정과 해입니다. 정과 해로 그 진리를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해를 닦는 것을 정혜쌍수라고 하고 정혜쌍수에서는 모든 것이 두가지로 집약되지만 결국에 두가지가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은 정과 해가 따로 설명하자면 두가지인데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일심에서 정과 해이고 동시에

아닌 깨달을 수 있다는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깨달고 닦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고 닦는데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정과 해입니다. 정과 해가 사실은 닦는 법이기 때문에 정과 해를 닦아 보면 설명 깨달지 못했다 해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밝고 본래 고요하고,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은 자리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정과 해로 개발하고 정과 해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발서 오염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세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 있으면 해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밝고 청초하고 항상 깨어 있는 상태가 슬기로운 밝은 마음의 본성을 발휘하는 해이고, 정이라는 것은 마

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인간의 부조리는 다 없어집니다. 그렇듯 못하니가 인간들의 마음 쓸쓸이가 아박합니다. 우리는 항상 듣는 마음을 들어켜 들어야 합니다. 잠잘때나 잠깨때나 일을 할때나 누울때나 앉을때나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들으면 다른 잡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잡념이 들어왔다가도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그 듣는 마음을 들어켜 듣는 것이 해가 되고, 아울러 듣는 마음을 듣고 있을때에 다른 외계와 잡념이 없어지니까 그 자체가 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과 어떤 규칙적인 생활 신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입니다. 가령 담배를 끊기 위해 담배를 들어가서 생활할 때는 피우지 않거나 나중에 절에서 나와서는 도로 피웁니다. 그래서선 절에서

‘개와 사자에 돌을 던지면 개는 돌맹이를 물려고하고 사자는 돌을 던진사람을 물지요’ 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소리는 돌맹이와 같으니가 소리를 듣는 그 자체를 포착해서 공격해 버리면, 분석을 하던지 조개버리던지 해 버리면 그것이 생사타파(生死打破)입니다. 죽고사는것이 그로부터 생기니까요. 마음을 섭심하는 것이 깨이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정이고 마음을 통달하는 것이 해로서,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정·혜가 결국은 중생의 현실에서 부처의 세계를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배가 없으면 바다를 건널 수 없듯이 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은 것이 계·정·혜 삼학입니다. 사실 참선이나 염불이나 교나 주력이나 단전호흡 등 모든것이 전부 배(船)입니다. 부처님의 법의배는 완전무결한 대승선, 반야선이기 때문에 그 배를 타면 위험이 없습니다.

결정론적 인과론 전제로 사물본질 분석 양자역학 탄생으로 기계론적 사고 붕괴

놀랐잖아. 삼리민상 모두가 결정론적 인과론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는 생각이 인도의 서쪽지방 사람들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칼빈(John Calvin)은 신의 구원마져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리고 고전물리학이 이 결정론적 인과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과거 5천년동안 법들의 운동을 관찰하고 물체의 운동을 관찰한 끝에 뉴턴에 의해 정리된 고전역학의 법칙은 아랍인식의 단순논리에 꼭 들어 맞았다. 물리학자들은 지난 19세기말까지 모든 자연현상이 뉴턴의 고전역학적 법칙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고전역학이 자연현상을 너무나 잘 설명했기에 라플라스(Laplace)같은 학자는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의 속도와 위치를 어느 순간 알기만 하면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말에 의심을 품는 학자는 없었다. 고전역학은 절대 시공간(絕對 時空間)의 존재를 전제로한다. 절대시공간이란 물질이 있던 없던 텅빈 시공간이 펼쳐져 있는 것을 뜻한다. 누가 측정해도 물체

高麗大藏經 研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영구보존사업, 대장경흥보, 대장경 전산화 작업. Includes images of a CD-ROM, a scroll, and a person at a computer.